



광주비엔날레재단이 20주년을 맞아 창설의 모태가 된 '광주정신'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난 2010년 5·18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 열린 '5·18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광주정신' 행사.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일보 최현배 기자 작 '우해'

'천변만화' 무등산

광주·전남사진기자회, 21~27일 광주시청서 사진전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무등산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장을 누비는 지역민들과 사진사 사진기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사진기자들은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무등산의 얼굴과 속살을 영글에 담아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산을 오르고, 또 구석구석 발걸음을 옮긴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회장 나명주)가 무등산 국립공원지정 1주년을 기념해 무등산 사진전을 연다. 전시는 21~27일 광주시청 1층 시민홀. 이번 전시에는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일간지와 통신사 사진기자 20여 명이 무등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된다.

동물 무렵 안개와 구름 사이로 드러난 무등산의 신비로운 모습, 하늘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무등산의 비경, 노루귀꽃과 노랑마태버섯이 피어나는 과정 등이 사진 속에 펼쳐진다.

나명주 회장은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1주년을 맞아 열리는 전시인 만큼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무등산의 대체로운 모습이 공개된다"며 "광주 시민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는 무등산의 다양한 모습을 많은 시민이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사진기자회는 이번 전시가 끝나고 추가 전시를 희망하는 단체의 신청을 받아 순회 전시를 열 계획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인류에게 ‘광주정신’을 씁니다”

“광주는 지난 33년 동안 5·18 행사를 해오면서도 특정 주제와 광주정신에 대해 심층적이고, 폭넓게 토론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에서 전인류를 향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나간채 광주연구소 이사장)

광주비엔날레가 20주년을 맞아 비엔날레의 모태가 된 '광주정신'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하기 위한 특별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비엔날레는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된 '광주정신 선언문'을 국제사회에 선포해 광주정신의 세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강연과 전시, 퍼포먼스를 통해 구현해낼 예정이다.



20돌 광주비엔날레, 특별 프로젝트 진행
18일, 전담에서 '라운드 테이블' 첫 행사
강연·전시·퍼포먼스로 '광주정신 선포'
심포지엄 담론, 국·영문 출판 각국 배포

16일 광주비엔날레재단(대표이사 이용우)은 재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광주연구소와 함께 광주발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 '광주정신의 전 지구적 가치'를 주제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원탁 토론회 ▲국제 학술 심포지엄 ▲광주정신 매니페스토(manifesto) 선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프로젝트는 1980년 5·18 민주항쟁 이후의 광주정신에 대한 연구와 토론들을 총체적으로 집약하고 21세기에 맞게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정신의 보편적 가치를 만들어 내겠다는 목표다.

그동안 5·18 민주항쟁에 대한 연구는 5월 단체는 물론 광주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 꾸준히 진행돼 왔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 확인과 기록, 추모 사업 등으로 범위가 제한돼 국제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광주정신 구체화를 위한 프로젝트는 이달부터 1년간 진행된다.

첫 번째 행사는 18일 오후 3~5시 전남대 5·18연구소 회의실에서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열린다. 김성재 조선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교수, 박구용 전남대 교수, 조지 카치아파카스 미국 웨트워스 공대 교수가 '광주정신'을 주제로 발제한다.

조지 카치아파카스 교수는 다류 'VERITAS(베리타스) : 허버트 그들만의 진실'을 찍은 고(故) 신은정 감독의 남편이다. 그는 지난 2001년 5·18연구소 객원교수로 재직하면서 광주와 인연을 맺었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5·18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미국인 5·18 전도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날 행사에서 조지 카치아파카스 교수는 '광주비엔날레와 광주정신'을 주제로 "80년 5월 항쟁 직후 누구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설하고 책임자 처벌을 논할 수 없을 때 예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항후 광주비엔날레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 예술가들의 참여를 더 많이 보장하고 광주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광주정신"이라는 발제문에서 "광주정신은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향해 있는 것"이라며 "광주정신은 배제되고 억압되고 소외된 낮은 이방인, 언어를 빼앗긴 '우리 안의 타자'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3차례 회의를 통해 집약된 광주정신에 대한 연구들은 오는 5월 '광주정신의 전 지구적 가치'(가칭)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 학술 심포지엄 토론 자료로 활용된다. 21세기적으로 구체화되고 심화된 담론은 오는 7월 '광주정신 매니페스토' 형태로 국제 사회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제10회 광주비엔날레는 물론 20주년 특별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되는 강연과 전시, 퍼포먼스 등으로 시민사회에 알릴 계획이다.

국제 학술 심포지엄에서 생산된 담론들은 올해 말 국·영문으로 출판돼 세계 각국에 배포된다.

이용우 대표이사는 "광주비엔날레가 중심 가치로 설정해 온 '광주정신'을 보다 통찰력 있는 학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시민사회와 광범위한 토론을 통한 공통보물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울치연대기' 김신운 씨 한국소설작가상

중견작가 김신운(전 동강대 교수) 씨가 한국소설가협회 주관 제4회 한국소설작가상에 선정됐다. 수상작은 '울치연대기'(문예비디).

'울치연대기'는 성장소설로 아름다움과 시간에 대한 발견과 성찰을 주제로 한 연작소설이다. 상상 속 마을 이름인 '울치'는 저자가 어린 시절 가보지 못한 산 너머 세계다. 소설은 각기 '만 우렛소리', '호모 파베르', '옴의 시선',

'바깥사람들', '지상의 시간' 등 모두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연작은 종교, 예술, 사회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 삶에 드리워져 있는 원초적인 세계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맞춘다. 작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동원적 이면에서도 신화적 세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확장된다.



작가는 "소년시절의 길고 아득한 날들을 혼자 그렇게 울치의 산과 들을 헤매 돌아다녔다"며 "이제야 그것들을 시간의 강물에 흘리고 기억의 체에 걸러, 다섯 덩어리의 작은 사금으로 골라낸다"며 의미를 부여한다.

김 작가는 1972년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 창간 20주년 기념 장편 모집에 '백령도'가 당선되었고 197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이무기'가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땅끝에서 며칠을', '청동조서' 등을 발표했고 광주문학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2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춘회관. 문의 010-8615-4408. /박성천기자skypark@

광주출신 서현일씨 '한국음악상 신인상'

윤재근 전 광주음악협회장·이창수 MBC 국장 공로상

광주 출신 피아니스트 서현일씨가 한국음악협회(이사장 김용진)가 수여하는 '2013 한국음악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서현일 윤재근 이창수

광주예고 2학년 재학 중 독일로 유학을 떠나 드레스덴 국립음대에서 수학한 서씨는 2010년 귀국과 함께 군복무를 마치고 개인 독주회 등을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광주음악협회장을 지낸 윤재근(중앙여고 교사)씨와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이창수 광주MBC 국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한편 본상은 최양욱(명지대학교 교수), 이희철(한국호른협회 회장)씨가 수상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 위치한 예술가의 집에서 열린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 4. 옥상 시공 후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